

그 소년은 언제나 제스에게 다가갈 듯, 그러나 닿지 않는 거리에 있다.
마치 우리가 평생을 걸쳐 찾고자 하는 삶의 의미처럼 말이다. 그리고 결국 그 의미는 어느 날 갑자기 손에 쥐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여정 속에서 서서히 발견되는 것이다. 제스와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그들만의 것이 아니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우리 각자가 겪는 인생의 다양한 순간들과 맞닿아 있다.

- 「리버보이」, 송지후

함께 걷는 독서

신흥중학교 독서토론부